

“읽고 쓰며 시·평론 두 길을 가다”

2021 새로운 출발

〈9〉 백애송 시인

문학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물론 보편적인 경우다. 하나는 ‘목을 매달 아도 좋은 나무’라는 결기로 입문을 한다. 한편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끄적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작가가 된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오늘의 시대 문학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본화된 사회에서, 자칫 ‘밥벌이’마저 어려울 수 있는 시대에 문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험’이다. 그러나 여전히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은 많고, 실제 소설집이나 시집을 발간하는 문인들은 줄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밀한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을 넘어 특권이기도 하다.

백애송 시인 또한 “중,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직업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학창 시절 거창한 작품을 쓴다기보다 다이나믹한 수첩에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중앙문단에 널리 알려진 시인이나 평론가는 아니지만 그는 꿈을 이뤘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글을 쓰는 지금이 행복하다(학기 중에는 광주대에서 글쓰기 관련 강의를 한다.) 백 작가는 2016년 ‘시와 문화’, ‘시와 사회’를 통해 각각 시와 평론으로 등단했다.

기자는 백 시인을 안 지 오래되었다. 2000년대 초반 광주대 문예창작과 석사과정을 공부하던 시절, 그는 조교였다. 대학원생 조교였던 그는 이제 시를 쓰고 평론을 하는 문인으로 성장했다.

열띤 친척하면서든 서글서글한 인상이지만 내면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사실 아직 시를 잘 모르겠다”는 말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은근한 열망이 배어 있다. 곧이어 “서사보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시가 더 좋아서”라는 부연이 뒤따른다. 시를 먼저 쓰고, 뒤이어 작품을 분석하는 평론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인가 보다.

“시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다면, 평론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인이

2016년 등단...글쓰기로 존재 증명 시집 ‘우리는 어쩌다 어딘가...’ 출간 박사논문 주제로 이성부 시인 연구 대학서 글쓰기 강의...평론집 계획도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썼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아직 공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철학이나 사상을 접목해 평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이의 작품에 대해 글을 쓸 때 최대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마음을 읽어보려 해요.”

그의 말은 ‘문학에 대한 예의’, 아니 ‘문인에 대한 예의’처럼 들렸다. 문학은 이편과 저편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라는 관점에서 보면 글쓰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해아림의 시작은 지역,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문인들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일 것이다.

백 시인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광주 출신 이성부(1942~2012) 시인을 연구했다. ‘이성부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이 그것. “대부분 박사논문은 지역보다는 중앙에서 소재를 찾는” 경향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다. “지역이 있어야 중앙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명인 이성부를 택했다.

이밖에 여러 논문을 썼는데 ‘198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과 시적 대응’, ‘영산강 시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연구’,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 분류와 개선 방안’ 등이 그것이다.



백애송 시인

틈틈이 계간지에 계간평과 시인론 등도 부지런히 발표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강의를 하고, 방학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최근 나온 시집은 제목부터 낭만적이다. ‘우리는 어쩌다 어딘가에서 마주치더라도’ (시와 문화)는 체념과 애정과 연민의 정서가 가득하다. 김규성 시인의 표현처럼 “저만큼의 거리에서 바라보다 한번 달지도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 마저 하지 못한 속제를” 하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아마도 시인의 체념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력’인 것 같다.

백 시인은 문명시집에 대해 “조교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선배를 많이 만났다”며 “나이 든 만학도 외에도 시와 소설 등 각기 장르별로 개성있고 인간미 넘치는 문청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평론집을 엮어낼 계획이다. 그는 “저를 믿고 귀한 글을 맡겨 주신 분들에게 보답을 할 예정”이라며 “누군가 내 시에 평을 해주면 참 설레는 일일 것 같다”며 웃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강의 준비를 위해 영상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강의를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고, 쓰고, 가르치고, 또 배울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단원 코로나19 확진

6일 발레 공연 3월 연기...창극단 검사 결과 대기, 7개 단체 자가격리



광주문화예술회관은 3일 광주시립창극단 단원이 코로나 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예회관 전경.

광주시립예술단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문화예술계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회관)은 3일 광주시립창극단 단원이 코로나 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회관은 시립창극단 운영실장을 비롯한 단원 60여명이 코로나 19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7개 시립단체 단원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는 4일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이에따라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 콘서트 #1 ‘브루흐&바흐 스위트 by 김용걸’이 오는 3월13일 오후 2시로 연기됐으며, 예매는 일괄 취소됐다.

또 오는 19일 예정된 국악상설공연과 24일 시

립교향악단 공연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악상설공연은 시립창극단과 광주시립창극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지역국악단체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립창극단 검사 결과에 따라 출연자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9일 오후 5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주 5회(화-토요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립교향악단은 24일 피아니스트 김도현을 초청해 ‘GSO 오티움 콘서트’ 첫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회관 관계자는 “창극단 단원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예술단 전체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예정된 공연, 전시 등은 확진자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에 이지담 시인 선임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회의) 회장에 첫 여성 시인이 회장으로 선임됐다.

작가회의는 최근 오프라인(문자 추천)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이지담(사진) 시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87년 창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작가회의 여성 수장이 탄생했다. 이 회장 임기는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신임 사무처장에는 오선덕 시인이 뽑혔다.

이 신임회장은 “가장 먼저 전체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외곽에 머물러 있거나 소외된 회원들을 보듬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월문학제, 길게시화전, 섬진강문학제 등



주요 행사 등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콘텐츠험발위원회를 발족해 회원들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 출신 이 회장은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3년 ‘시와사람’으로 등단했다. 비타포엠 시낭송회 회장을 역임했고, 시집 ‘고전적인 저녁’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생 2막 준비하는 소소한 이야기

김명진 광주원에농협 화순지소장 ‘분모의 길’ 펴내

나의 60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 친구들과 히말라야 등반, 스페인 순례자의 길 걷기, 유튜브 방송, 15년간 했던 바이올린 다시 연주하기, 포켓 폴카 요가 더 열심히 하기...

김명진 광주원에농협 화순지소장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버킷 리스트’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분모의 길’을 펴냈다. ‘7분의 생각(7Min Think)’에 이은 두번째 책이다.

‘살아온 길’, ‘가지 않은 길’, ‘공존의 길’ 등 8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항상 ‘또 다른 출발’을 꿈꾸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상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펼쳐진다.

책에는 넉넉치 않은 집안 살림 때문에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광주상고에 입학한 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야기, 5·18 당시 계엄군에게 연행될 뻔했던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이정숙 간호사를 24년만에 만난 일이 광주일보



에 소개된 사연 등이 실렸다. 또 45년만에 다시 모인 나주초등학교 65회 친구들과의 정겨운 만남, 1986년 광주원에농협 입사 후 35년 가까이 몸 담았던 직장 생활 이야기, 인생의 순간 순간마다 만났던 수많은 사

람들의 조언과 도움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저자는 ‘일상에 한번 고수를 만나라’는 책을 읽고는 묵묵히 결을 지켜온 아내를 떠올리기도 하고, 나눔과 공존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도 내비친다.

나주 출신으로 방송통신대 농학과와 호남대 복지행정대학원, 전남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김 씨는 전남대 총장상, 농협중앙회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농협상호금융 21C위원회 및 전남 회장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따뜻한 가족이야기를 담은 영화부터 왕가위 감독의 러브스토리, 달콤한 디저트를 주제로 한 작품이 광주극장과 CGV 등에서 개봉한다.

4일 개봉하는 ‘피어롤’은 뉴욕에 사는 빌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위해 벌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거짓말을 담은 드라마다. 중국계 미국인 감독 톨루 왕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중국의 도시 창춘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미국 이민 2세대 주인공 빌리의 혼란과 갈등을 통해 가족과 삶, 자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주연배우 아라피나는 이 작품으로 제77회 골든 글로브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뮤지컬·코미디 영화

광주극장·CGV 개봉

부분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다.

같은 날 개봉하는 ‘해피 투게더 리마스터링’은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보영과 아휘의 슬프고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다. 독보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는 제 50회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왕가위 감독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린 작품이다. 장국영과 양조위의 환상적인 앙상블, 부에노스아이레스 풍경 등을 4K 리마스터링으로 만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는 오는 11일 개봉한다. 손님이 원하는 추억의 레시피로 행복을 선물하는 노팅힐의 베이커리 ‘러브 사라’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생전 자신의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던 파티셰 사라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엄마 미미와 딸 클라리사 그리고 친구 이사벨라가 런던 노팅힐에 베이커리 ‘러브 사라’를 오픈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런던 노팅힐의 전경, 로즈 마카롱, 무스 온 어 비스킷, 말차 밀 크래이프 등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디저트는 영화 속 다양한 볼거리를 예고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